

KT&G-독도재단, 외국인 유학생들과 독도탐방

대구·경북지역 유학생 70여명 참여 현지 방문·박물관 견학 등 독도 알리



KT&G는 재단법인 독도재단과 지난 20일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독도에서 '사랑해요 독도, 사랑해요 대한민국' 행사를 진행했다. /KT&G

KT&G와 재단법인 독도재단은 지난 20일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독도에서 '사랑해요 독도, 사랑해요 대한민국'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북대와 영남대 등 대구·경북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70여명은 지난 1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먼저 첫 날에는 독도문제 전문가인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특강을 듣고, '도전 독도 상상샐' 퀴즈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독도 관련 지식을 쌓았다.

20일에는 대한민국 최동단인 '독도' 현지 방문과 함께 울릉도에 위치한 독도박물관을 견학했다. 또한 대학생들의 사회공헌활동 플랫폼인 'KT&G 상상유니브'가 진행

하는 'I ♥ 독도' 스피치대회를 통해 독도를 보고 느낀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마지막 날에는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안홍복기념관 등을 답사한다.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시민들에게 독도를 널리 알리고 자 금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ELS·DLS가 편한 투자라고?



기지 수첩

안 상 미
(파이낸스&마켓부)

몇 년전 프라이빗뱅크(PB)를 통해 추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한 적이 있다. 여유자금을 은행 예금보다 효율적으로 굴리고 싶단 말에 PB가 추천한 제안이었다. 여유자금이라고는 하나 2년 뒤 전세금 증액에 대비한 용도니 원금을 까먹어서는 절대 안되는 돈이었다.

기초자산은 당시 유행이었던 홍콩H지수를 포함해 유로스톡스(EUROSTOXX)50과 코스피200이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하던 때라 전망은 장밋빛이었다. PB는 원금 손실이 시작되는 조건이 기준가 대비 55%나 지수가 반토막이어나겠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홍콩H지수는 1년 뒤 불가능할 것 처럼 보였던 하락률 50%를 기록했고, 녹인(Knock-in·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다는 문자를 받은 이후로는 매일 중국 증시를 확인해야 하는 마음 불편한 날들이 이어졌다. 50% 하락할 때까지 수익이지만 일단 녹인 구간에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면 지수 하락률이 그대로 내 손실이

된다. 그제서야 연 6% 수익 내자고 원금을 손쉽게 반토막 낼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어리석은 투자를 후회했다. 지수 반등에 결과는 약속된 수익을 챙긴 '해피엔딩'이었지만 다시는 ELS를 쳐다보지 않기로 했다.

몇 년마다 되풀이되는 악몽만 나면 선진국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증권(DLS)과 이를 담은 파생결합펀드(DLF)가 원금을 절반 이상, 많게는 거의 다 날리게 됐다. 지수 연동 상품은 그나마 각국의 경제상황과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금리 연계 DLS는 예상한 포지션과 반대로 시장이 움직이면 순식간에 손실이 불어나는 초고위험 구조였다.

ELS에서 손실이 날 때마다 감독당국은 대책을 내놔다. 투자자에게 리스크를 확인했는지 자필로 서명케 하고, 고령 투자자에게는 녹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 사태에서도 은행 측이 투자자 녹취를 유난히 강조한 이유다. 투자설명을 들었냐고 한 말에 '네'라고 답했을 뿐 판매직원들이 독일국채를 강조하며 절대 안전하다고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을 챙겨 녹음한 투자자가 어디 있을까.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smahn1@metroseoul.co.kr

차에 깔린 할머니 구조한 SK매직 직원 표창

SK매직은 충청물류 설치마스터 4명이 교통사고로 차에 깔린 할머니를 구조해 대전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이면도로에서 한 남성이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었다. 할머니는 사고 직후 허반신이 차에 깔려 꼼짝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인근에서 사고를 목격한 SK매직 충청물류센터 소속 설치마스터 4명

이 승용차를 들어 올려 할머니를 구조했다. 이에 대전경찰청에선 지난 19일 신속한 구조로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SK매직 설치마스터 윤석화, 손흥연, 김표, 이호경 씨에게 표창장과 시민경찰패지, 포돌이 인형을 포상했다. SK매직서비스도 의료운 구조활동을 펼친 이들 설치마스터 4명에게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SK매직은 충청물류 소속 설치마스터 4명이 대전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왼쪽부터)SK매직 김표, 이호경,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손흥연, 윤석화 설치마스터. /SK매직

오늘의 운세

8월 22일 (음 7월 22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지손의 초대로 하루가 즐거운 날. 48년생 외부활동을 자제. 60년생 조급함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매사에 신중. 72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84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지니 침묵.
- 소** 37년생 개띠와의 거리가 순조롭게 풀린다. 49년생 친척의 방문으로 새로운 근심이 생긴다. 61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나의 허물도 드러난다. 73년생 약간의 머구름이 끼어 있을 뿐. 85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로 과소비를 주의.
- 호랑이** 38년생 웃장 정리하는 취미를 가져보자. 50년생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가르칠 건 가르쳐라. 62년생 숨은 실력을 발휘하고 남들의 시선을 받는다. 74년생 내가 행복한 것이 모든 행복의 첫걸음. 86년생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
- 토끼** 39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사람을 경계. 51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하늘도 높고 세상도 넓다. 63년생 명예는 높이지만 실속은 별로. 75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87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 용** 4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아예 포기. 52년생 자식 자랑으로 입에 침이 마른다. 64년생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76년생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의도는 왜곡되기 쉽다. 88년생 의지력이 약한 것을 보완.
- 뱀** 41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운동을 열심히. 53년생 자식의 어려움을 알아줘야 한다. 65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데려오니 이득이 많은 날. 77년생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새아침이 온다. 89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 말** 42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마음을 겸손하게. 54년생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버려둬라. 66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잘 보살피라. 78년생 매사 귀찮고 심드렁한 날. 90년생 배움은 끝이 없다했으니 도전.
- 양** 43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55년생 상대는 호기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착각. 67년생 오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79년생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밤이다. 91년생 먼저 이해하고 상대를 설득 시켜라.
- 원숭이** 44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나 실수도 있다. 56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 68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 마라. 80년생 작게 존중해줘도 90%의 마음을 얻는다. 92년생 그물을 치고 고기를 기다려라.
- 닭** 45년생 의뢰로부터 참가 힘든 건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57년생 모심으려 할 때는 정화를 심어야 한다. 69년생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81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 93년생 동료와의 의견충돌을 조심.
- 개** 46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58년생 멍석이 깔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70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에 마음이 기쁘니 북병을 주의. 82년생 진실로 대하면 통한다. 94년생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있다.
- 돼지** 47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갈아라. 59년생 어디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노력. 71년생 재활용으로 낭비를 줄여보자. 83년생 가족과의 화목이 새로운 힘을 생기게 한다. 95년생 경쟁자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2	6		8			
3	1			7		6		
9	3					1		
6	5	3	2			9		
1	2			6		7		
2	7			4		5		
8		1	5					3
	1	4			9	8		

5		7		8			3		2
	8	4	3			1	7	5	
	4								9
	5	1	6						3
									6
	1	6	7		3				
2		9		1		5			3

스도쿠 정답									
9	2	8	6	4	1	7	5	3	
7	4	1	2	5	1	9	6	8	
1	5	6	7	8	9	1	2	3	
5	1	4	9	6	7	2	8	1	
8	6	7	1	2	4	5	1	9	
2	1	9	8	1	5	2	7	6	
6	9	5	1	7	8	1	2	5	
1	8	1	4	9	2	6	5	7	
4	7	3	5	1	6	8	9	1	
4	9	5	7	1	8	6	1	2	
2	8	1	2	9	6	5	2	7	
6	2	7	4	5	1	9	1	8	
1	1	9	5	7	2	8	6	4	
7	4	2	8	6	9	1	5	1	
5	6	8	1	4	1	2	7	9	
9	5	1	1	2	4	7	8	6	
8	7	6	9	1	5	2	1	1	
2	1	4	6	8	7	1	9	5	

문제 제공= 보스



김상회의四季

세상을 이롭게

여러 가지 재난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하도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가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니 뉴스를 보기도 겁이 난다고 한탄하는 어느 노보살님의 탄식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이럴 때 필자는 개인들 각자가 짓고 있는 업도 문제지마는 함께 짓는 공업(共業)도 생각해볼게 된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도 우리 모두의 공업에 해당이 된다. 지구 곳곳에서 환경오염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산업쓰레기가 등장했지만 지금은 온통 일회용품 일색인 시대라 집안은 물론 집 밖 여기저기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물건들로 둘러싸여져 있다. 우리 자신의 몸에도 해로운 뿐더러 공기오염 식수오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산업에너지로 인해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몇 년 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아마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회복되기 힘들다고 얘기한다. 대석학이신 탄허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핵으로 이해 인류는 큰 흥역을 치를 것이라고 했다. 주역에 근거하여 당대의 주요 현안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의 적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였다.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진이나 해일 같은 큰 자연재앙으로 인해 지구는 흥역을 치를 것이란 것이 요지다. 그런 과정을 통해 지구 지축은 23.5도 기울기에서 직각으로 바로 설 것이며 그 과정에 핵을 가진 나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만큼은 핵을 멀리하라 말씀한 내용을 본 적이 있다. 세계의 정세는 각국의 이익에 따라 참으로 복잡다단하게 굴러가지만 천지자연만큼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 흘러간다. 곳곳의 천재지변이나 재앙은 우리가 짓고 우리가 바로 받고 있는 것이니 누구 탓하라.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6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71호